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4	09. 21	09. 28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정환영 형제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이윤선 성도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새학기 기도회 - 9월30(월)~10월4일(토) 오전 8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4.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저녁 7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5. 나눔의 시간 - Steinbauer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복자 권사, 이한빛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8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0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히 4 : 9 - 13(신p356) (Hebräer 4:9-13)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휴식에 대한 성경적 견해	이상호 목사
성찬식 Abendmahl	보혈을 지나, 막14:22~26	담임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정욕의 노예로 사는 자들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이렇다 혼나지”라는 신에 대한 막연한 어떤 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신이라면 마음대로 해도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하게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첫 번째 삶의 현상이 있다면 곧 성적 타락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성적 타락으로 빠져듭니다. 왜 성적 타락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주체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쉽게 풀어 쓴 로마서 이야기 /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 원로)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말씀 앞에 정직하기 위해 결단할 영역(습관)은?